

Henkel, Dial 인수 “복미 공략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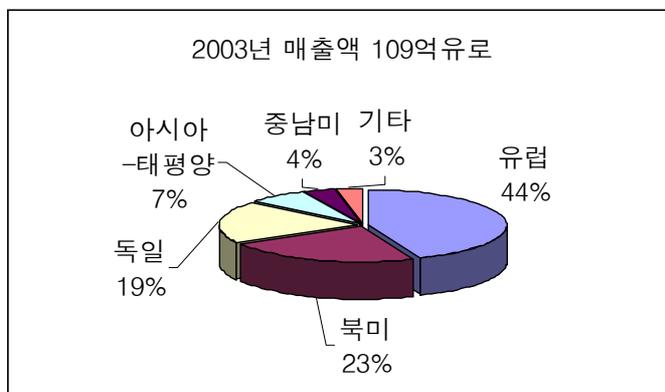
현금 29억달러에 인수 합의 ... Citigroup은 부정적 인수효과 전망

독일 접착제 브랜드 Henkel이 현금 29억달러에 Dial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.

인수금액은 Dial의 주가를 주당 28.75달러로 쳐준 것인데 이는 인수발표가 나기 전 종가를 기준으로 11.1%의 프리미엄을 더한 것으로 EBITDA(Earnings Before Interests, Taxes, Depreciation & Amortization)의 10.3배에 달한다.

Henkel은 투입 가능한 자금을 총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킬 계획으로 Clorox 및 Ecolab 지분매각도 고려하고 있으며 Dial 인수를 통해 시장점유도가 낮은 복미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Henkel 및 Dial의 매출비중



† 추정치

자료) Henkel

Dial은 북미 시장에서만 2002년 매출액 12억8000만달러 및 영업이익 2억200만달러를 기록했다. Henkel의 북미 매출액은 14억유로(17억3000만달러)로 전체 매출의 14%에 불과했으나 인수 후 북미 매출비중이 23%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

Dial의 Purex 제품라인은 2002년 미국 세탁용 액체세제 시장에서 매출액 4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Procter & Gamble의 Tide 제품라인 다음으로 높은 13.7% 점유율을 확보했다. Purex는 최근 3년 동안 매출액이 연평균 10% 이상 증가했다.

Dial의 다른 브랜드 제품에는 Dial, Tone 및 Coast 등의 바(Bar) 비누 제품, 공기청정제 Renuzit 및 육류통조림 식품 Armour 등이 있다.

Dial은 세탁보호, 공기청정, 퍼스널 클렌징, 식품 및 캐나다를 포함한 국제사업부 등 총 5개 사업부로 구성돼 있으며 역시 북미시장에서 1-2위를 점유하고 있다.

Henkel 또한 홈케어, 퍼스널케어, 접착제, 기술 및 법인 등 5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. Dial 사업인수를 통해 앞으로 세탁용 세제를 포함하는 Henkel의 홈케어 부문 매출비중은 32%에서 36%로 확대되고, Dial의 퍼스널케어 사업을 통해 매출액 1억2000만달러를 추가함으로써 퍼스널케어 매출비중은 22%에서 23%로 확대될 전망이다.

그러나 전문가들은 Henkel-Dial의 거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.

Citigroup Smith Barney는 Henkel이 최소 10년 동안은 자본코스트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2사의 매출증가율이 3-4%대로 낮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매출신장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또

Dial이 코스트 감축 및 기업성장 측면에 있어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으나 최근에는 성장주기의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어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Dial의 제품으로 유럽시장을 공략하고 Henkel의 제품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Cross-Selling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2/17>